

(배경음악이 흐른다.)

배경은 추모공원 인물들은 무대 양쪽에서 등장해 인사를 나눈다.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평화로운 분위기)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장. 신기자 멀리서 따라온다.

남자 1: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자연스럽게 안부 묻기)

모두들: 안녕하세요? (포옹하며) 건강하셨죠? 잘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여러분들도 모두들 잘 지내셨죠? (관객쪽을 향해 양손을 벌리며 인사)

남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손짓으로) 미진아 여기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미진 : 안녕하세요. (다락방장님, 좌석 앞쪽에서 목소리만)

할아버지: 그래그래.. 너두 일 년 새에 많이 컸구나

할머니: 너무나 예쁜 아이야.

할아버지: 애들 크는 거 보며 정말 우린 늙는 것두 아냐

남자2: 두분 다 아직 젊으세요

할아버지: 아 참 소개하지 지난번 얘기했던 내 막내아들 친구 신문기자 청년 (어깨 톡톡)

신기자: 안녕하세요 대한일보 신기자예요.(먼저 배우한테 인사/ 그리고 관객에게 안녕하세요~~)

남자 2: 안녕하세요..

신기자: 오늘 이 추모예배를 취재하기 위해 아버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신기자: 아버님께서 대략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의 사고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추모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श्य요.

남자: (앞으로 걸어나오면서)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2막

(대사하시면서 오른손 들고 버스 탑승 모션+대열 맞추기)

남자2: 그 날이 마침 장날이어서 마을버스 안엔 많은 사람들이 탔었어요

할머니: 아이들도 있었구요

할아버지: 15인승 마을버스가 꽉 차 통로에 서 있는 사람만 해도 여럿이었죠

남자2: 구암리 버스 정류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우고 읍내로 가는 고개 내리막길로 버스가 막 들어섰을 때였어요.

갑자기 버스 안에서 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이~청하는 거예요.(다같이 오른쪽으로 흔들)

할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할아버지: 그 내리막고개가 좀 가파릅니까? 버스가 비탈 아래로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지요

할머니 :(할머니가 오른쪽 위를 보면서)길 오른쪽은 뽕족한 바위산이고(대사 마치면 나머지 시선 따라가기), (왼쪽 아래를 보면서)왼쪽은 바로 시퍼런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지요.(대사 나머지 마치면 시선 따라가기)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속이 붙어 점점 더 빨라졌지요.

할아버지:(몸을 양손으로 감싸며)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할머니: (머리 양손으로 감싸면서)너무 무서웠어요.

남자: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고 버스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어요

남자2: 저 앞에서 마주 오는 차 한 대와 스치듯! (왼쪽으로 지나가는 차를 시선으로 쫓아가며 몸을 돌려)....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버스기사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매우 침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모퉁이를 돌자 저기 저 앞으로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할머니: 버스는 도저히 멈출 기미가 없어보였고, 놀란 아이는 꿈쩍도 못하고 제자리에 서있더라고요..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도

(손가락으로 정면을 가리키며)“아이예요!!”라고 소리쳤지만 만약 그 아이를 피한다면 버스는 어쩔 수 없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할아버지: 저 아이를 피해야 할텐데...순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한가운데 놀란 표정으로 멈춰있는 그 아이를.

(할아버지: “안돼!!”, 나머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림) 치고 말았어요.

(잠깐의 적막이 흐른 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버스 손잡이 손 고정 해제)

모두들:(놀란 가슴을 손으로 쓰러내리며) 휴~~

남자2: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 나오던 한숨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누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할머니) “아이가 죽었어요”하고 외쳤고 모두들 멍하게 굳어버린 버스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모두 중앙으로 모여 관객석 쪽 바닥 응시)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있었습니다.

할아버지:(관객을 바라보며) 그리고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분노에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관객을 향해 손을 펼치며 호소)

할머니: (양손을 펼치며)말도 안돼요!

남자2: 왜 이 아기가 죽어야 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할머니: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남자1:(손가락을 가리키며) 바로 당신! 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잠깐 정막이 흐르고)

할머니: (관객을 바라보며)만약 그 아이를 피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모두 그 사실을 마음 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입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죄책감으로 분노가 더 거세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손가락질) 살인자!

할머니: 왜 죽였어요?

남자: (손가락질)당신이 죽였어요!

할아버지 : (손가락질)당신은 살인자요

남자2 : (손가락질)당신이 이 아이를 죽였어..

남자: 그때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말을 더듬으면서 가르키며) 어... 아니.....이 아이는 바로 저 사람의 아들이예요. (오른쪽으로 주저앉는다)

할아버지: 우리는 멍하니 할말을 잃었지요.

아이가 바로 버스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숨 막힐듯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3막

신기자: 그럼 그 마을 버스기사는 그 아이가 자기아들인 줄을 알았다는 건가요?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했던 거예요?

남자2: 그렇습니다.

할머니:(다락방장 님을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저기 뛰어놀고 있는 미진이 나이 또래의 아이였어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그 때 그 아이가 우리 대신 죽지않았다면...

내가 과연 그때 그 버스기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과연 내 자식의 생명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럴 수 있을 꺼라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신기자: 누구에게라도 어려운 거겠지요.

남자2: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남자: (관객을 바라보며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며)

그때 전 부임한지 얼마 안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었지요.

언제라도 내던지고픈 사직서 한 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었지요.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선생이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쫓아 뛰쳐나갈 욕구로 가득 찼었죠. 당연히 그 모든 욕구에 대한 불만이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과 또 그들 부자에 대한 사랑의 빚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생명을 댓가로 한 사랑의 빚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저의 생명과 받았던(바닥에서 하트를 주워 들며)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 하트 전달)

할아버지: (하트를 받으며)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배우들에게 손을 펼치며)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으며)또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양손을 가슴에 모으며)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았던 손을 관객들을 향해 펼치며)남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신기자: 그래서 아버님께서 은퇴하시고도 순회 무료진료를 다시 시작하신 거군요?

할아버지: 하하하. 이 늙은이한테 평생하던 그것 말고 또 뭐가 있겠소?

(할아버지 제외 전원 착석, 기자는 대각선 왼편 착석)

(나같은 죄인 살리신 음악이 흐른다)

할아버지:(앞으로 한발자국 나아가며) 나도 언젠가 이 아이처럼 이렇게 잠들겠지만, 세상사람들 그 누군가에게라도 사랑 한점은 되돌려 주고 싶다오.

신기자:(일어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찍고 마무리 할까요?

할머니: 네 다들 일어납시다.

신기자: 하나 둘 셋! 찰칵

◆암전(왼편 위에 있는 PPT로 몸과 시선을 향하며)

(배역들 단체사진)

(현지교회 사진 배경으로 자막 띄우며 나레이션 시작{신기자}?)

(자막)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저희를 찾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OHP나 프리젠테이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극이 끝난 뒤에 자막을 넣어주면 좋을 것이다.)